

광주시, 시립점자도서관 건립...내년 상반기 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 연면적 420㎡ 지상 4층
점자도서 제작·음성녹음 공간 구축...문화행사도

광주시가 시각장애인과 시민 모두에게 열린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한다. 광주시는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환대의 도서관'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작품을 선정했다. 환대의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촉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고려하고 동선체계를 단순화해 높은

접수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누구나 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립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부지에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20㎡,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도서를 비치하고 점자도서열람실, 점자인쇄실, 제본실, 음성녹음실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다목적홀 등을 갖춘 공공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근 시 문화기반조성과장은 11일 "점자도서관이 건립되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과 함



개여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고흥군, 혈압·혈당 측정기기 무료 대여 실시

자가관리 통해 심뇌혈관 질환 및 합병증 발생 예방

고흥군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 유질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혈압·혈당기기 무료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여 사업은 고혈압 당뇨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가정에서의 자가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혈압·혈당기기는 1개월 대여 후 1회 연장 가능하며 건강관리 수첩과 더불어 혈당스티커, 알콜 솜 등 소모품도 무료 지원한다.

또한, 대여 시 담당간호사가 기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혈압·혈당 측정 법,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관한 건강 상담 등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 걱정 없는 고흥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여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진료팀(☎ 830-6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김택영기자

함평군, 취약계층 장기입원자 '미끄럼방지매트 설치사업'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안방 및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함평군이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안방 및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퇴원 후 가정으로 안심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1:1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총 90명의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자가 퇴원 후 낙상사고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현 주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사전에 파악해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장기입원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 비대면 상담, 보호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



료급여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자녀 관계향상 집단상담

놀이 프로그램 통해 양육태도 인식·긍정적 관계 형성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조혜

정, 이하 지원센터)가 7개 가정의 부모·자녀 15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향상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행복은 키우고, 사랑은 더하고'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집단상담은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을 통해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 집단상담은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나를 소개하기, 놀이를 통한 소통하기, 내 감정

다루기 및 내 마음 표현하기 등 부모-자녀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놀이활동으로 내 아이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감정을 다스리는 표현을 배우니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감을 높일 수 있어 아이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만족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p>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p>	 <p>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p>	 <p>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어 주세요!</p>
-----------------------------------------------------------------------------------------------------------------------------------	----------------------------------------------------------------------------------------------------------------------------------------	-----------------------------------------------------------------------------------------------------------------------------------------